

# 石谷 李圭駿의 한시 연구<sup>1)</sup>

이준규

부산대학교

## Research of Seokgok(石谷), Lee Gyu Jun(李圭駿)'s Chinese Poem

Lee Jun Gyu

Pusa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on Seokgok(石谷), Lee Gyu Jun(李圭駿, 1855~1923)'s thought and medicine was progressed from various angles. There is no research on Chinese poem(漢詩) accounting for the half of his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Seokgoksango(石谷散稿)』 yet. Hence, the article reviewed concerns on his life and what life he lived as a Confusion(儒家) writer through his Chinese poem.

Should read 『Seokgoksango』, Seokgok's spiritual orientation and attitude to life were found to have its core in the Confusion(儒家的), especially ethical(道學的) aspect. Seokgok's Chinese poem materialized his spiritual composition more, able to access up to general emotional state, representing concerns and frustration of intellectuals in the latter era of the Choson Dynasty. Anxiety consciousness(憂患) of patriotism and love of the people which traditional intellectuals implicated enough at the turbulent era of early modern time appeared strongly in his works. Also works seeking for devotion(歸依) toward the clean world(清明世界) staring at the corrupt world losing the national sovereignty at the same time and the expansion(擴散) was able to be found many.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and the early 20th century when Seokgok lived was the period of changeover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called intersection between traditional era and modern times. His Chinese poem showed traditional intellectuals' anxiety, frustration, conflict, and hope based on such times.

Along with the status of an Oriental, medical doctor and thinker, up to discussion on the quality of a writer, the intensified research on him is expected.

Theme words : Lee Gyu Jun, 『Seokgoksango(石谷散稿)』, Chinese poem(漢詩), Confusion(儒家), volition of the awakening of the people(經世), anxiety consciousness(憂患).

### I. 서론

石谷 李圭駿(1855~1923)의 思想과 醫學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진행되었지만 그의 문집 『石谷散稿』의 절반을 차지하는 漢詩 작품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그것은 李圭駿에 대한 관심이 한의학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李濟馬의 四象體質醫學과 함께 李圭駿의 扶陽論的 醫學論이 조선후기 양대 산맥임이 알려지면서 그는 大家的 位相을 차지하게 되었다<sup>1)</sup>. 그럼에도 石谷은 韓醫學者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의 文人的 氣質 또한 분명 존재한다. 韓醫學者로서의 입

접수 ▶ 2012년 6월 30일    수정 ▶ 2012년 7월 30일    채택 ▶ 2012년 7월 30일  
 교신처 ▶ 이준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부산대학교  
 Tel 010-8885-7701    E-mail mhlee@kiom.re.kr

1) 권오민, 「石谷 李圭駿의 人間觀과 醫學論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10, 참조.

지가 먼저 강조되다 보니, 아직 文人的 면모를 논의할 단계에까지 연구가 진전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한시작품을 통해 그의 삶에 대한 고민과 유가 문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지향했는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의 文集을 통독하면서 특히 그의 한시작품을 주목해보면 그의 정신지향과 삶의 태도는 儒家的 특히 道學的 國면이 그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방대한 분량의 한시는 아니지만 그의 한시작품은 다양한 인물과 소재가 등장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일관되게 보여주는 그의 認識論의 思惟는 道學的 기취가 매우 강하다. 이는 石谷이 구한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대면하면서 갈등과 고뇌를 전통적 방법이지는 하지만 유학적 이상세계를 통해서 그 시대를 극복하고 돌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石谷의 漢詩는 7언율시 78수, 7언절구 17수, 5언율시 2수, 5언절구 3수 총 100수가 『石谷散稿』에 실려 있다. 주제별로 보면 현실에 대한 비판과 백성들의 삶에 대한 슬픔, 國土山河의 유람과 그 鑑戒에 대한 述懷, 樓亭 탐방과 고인에 대한 회고, 知友들과의 만남과 이별, 선배와 지인들의 죽음에 대한 哀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韓末 한 지식인의 고뇌를 백성의 비참한 삶과 한말이라는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했다.

석곡 한시의 다른 주제의 한시작품은 별도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한편 그의 각 향촌 지역의 長德과 知舊間의 왕복 서간이라든지 시속이 날로 각박해지는 것에 대한 한탄과 유학의 부식, 政事에 대한 비판과 지우간 선비로서의 격려 등의 다른 산문들도 그의 한시작품과 함께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先哲의 微言의 구명과 실천 방법에 대한 論辨, 經傳의 大義의 敷衍과 현실적 체험에 論究 등의 사상관련 제언들은 보다 심도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본고는 그의 漢詩의 골간이 되는 道學的 성향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먼저 살피기로 한다. 그리고 석곡의 세계관을 정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문학인식의 基底의 思惟를 알아보겠다. 또, 석곡의 人性論과 理氣論을 아울러 해명하고 그 바탕위에서 개별 한시작품을 분석한다. 다만 그의 문인적 기질과 이에 따른 문학적 성취 고려하면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 II. 時代認識과 思想的 基底

본장에서는 그의 한시문학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그 문학적 배경과 사상적 기저를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石谷散稿』는 李圭峻의 생애, 사상, 교유인물, 西學 및 과학문명에 대한 태도, 종교적 시각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의 한시문학에 대한 논의에 관련되고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sup>2)</sup>

석곡이 살았던 시기는 근대적 전환기로 격동의 시대였다. 韓末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은 그의 사상과 문학을 구성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 더구나 일제의 침략과 서구문명의 東漸은 석곡 개인사적으로도 큰 시련이었지만, 국가적으로도 도전이고 크나큰 위협이었다. 그의 氣一元論的 思惟와 扶陽論的 醫學論<sup>3)</sup>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대는 한말이라는 격동의 시기이고 대내외적으로 도전과 시련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유학계는 보수적 性理學과 禮敎의 教條主義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석곡이 氣哲學 내지 惟氣論的 思惟의 일단을 보이는 이유는 전통적 程朱學的 사유에 대한 비판적 사고로 이를 극복하고자 한 한 지식인의 고민의 소산이었다. 그는 陽明學과 西學에까지 넘나들며 자유로운 횡보를 보이면서 主體的 體得을 강조한 所以도 기존 학계에 대한 비판과 극복의 한 방안이었다.<sup>4)</sup> 退溪의 主理論도 栗谷의 主氣論도 양자를 모두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바, 자신의 惟氣論的 氣哲學은 이러한 그의 정신적

2) 『石谷散稿』의 문학적 특징과 면모에 대해서 이미 상세히 논의된 바 있다. 번역서는 한국학의학연구원에서 간행되었는데, 본고는 이 번역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李圭峻 著, 『국역 석곡산고·석곡심서·포상기문』, 『전통의학·고전국역총서29』,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3) 권오민, 「이규준의 心氣哲學과 扶陽論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5.

4) 이규준의 생애와 사상 전반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정수경, 「석곡 부양론의 한방부인과 임상응용을 위한 의사학적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6.

권오민, 박상영, 안상영, 한창현, 안상우, 「석곡산고 번역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권오민, 남성우, 안상영, 박상영, 한창현, 안상우, 「석곡산고 번역 연구Ⅱ」,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권오민, 「石谷 李圭峻의 人間觀과 醫學論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10.

기반 위에서 성립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기본적으로 畿湖學派에 속한다. 그의 다양한 글에 피력했듯이 尤庵 宋時烈에서 臨齋 徐贊奎로 이어지는 영남 기호학과에 속한다. 이 主氣의 경향을 바탕으로 서서히 氣一元論에서 惟氣의 성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요컨대, 석곡은 理氣二元論적 主氣論이 아니라 理氣一元論의 내지 理氣合一의 氣一元論이라 규정할 수 있겠다.

한편, 석곡의 의학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扶陽論의 사유도 이미 전술한 기일원론 사유와 모종의 관계를 가진다. 『素問大要』는 그의 부양의학론의 이론을 집대성한 저술이다. 여기서 陽氣의 강조는 그 의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결국 그의 기일원론적 사유 그리고 문학예술론의 ‘陽氣論’까지로 그 일도선상에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저술에 “陽氣竭則生道盡矣”<sup>5)</sup>라는 문구에서도 단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듯이, 陽氣는 석곡에게 있어 生命力的 根源이자 萬物의 源泉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한시작품에서 양기의 강조도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석곡은 한말의 국가적 위기도 유학내외의 봉당적 분열과 현실성 없는 공리공담 같은 관념적 사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유약하고 관념에 빠져 있는 유학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결국 석곡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 탐구와 사상에 대해 個我的 體得과 깨달음을 강조하였다.

그의 교유관계의 특징적인 측면은 抗日 인사와의 교류가 두드러진다는 측면이다. 이는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扶陽論의 思考, 陽氣論의 思惟 등과 결합해서 볼 때, 암울한 세상 혹은 혼탁한 세상에 은거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아니라 시대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주체적으로 민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신지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석곡의 의학론의 핵심인 扶陽論, 陽氣論의 文學觀, 氣一元論의 世界觀 등은 모두 상호 有機的 관련을 맺고 있다. 그의 한시작품 또한 그러한 사상적 예술적 기반 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內憂外患의 극심한 韓末 혼란기에 석곡은 어떤 精神構圖로 시대를

이해하고 한시작품으로 형상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Ⅲ. 石谷 漢詩의 주제의식

#### 1. 愛民의 성향과 道의 扶植

石谷이 살았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는 전통시대와 근대시기의 분기점이라는 文明史的 전환의 시기이다. 조선 정치사적으로 보면 구한말을 거쳐 애국계몽기 시대와 일제강점기라는 변화와 모색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석곡은 어떤 정신지향과 태도를 보였는가를 먼저 살펴보자.

〈同厚山南遊 滯雨月城〉 후산과 함께 유람하다가 비가 내려 월성에 체류하면서

淋瀝苦雨月城南	月城 남쪽에 방울방울 오래도록 비 내리
懷抱悠悠未吐談	가슴 속 생각은 아득한데 토로하지 못하네
大野水連平似海	큰 들은 온통 물이라 바다처럼 평평하고
小溪苔滿碧如藍	작은 시내 이끼 천지라 쪽처럼 푸르구나
年飢村落多羸婦	흉년 들어 촌락엔 야윈 아낙 많고
世亂山河少義男	세상 혼란해 산하대지엔 의리 있는 사내 적네
宇內于今皆失哺	세상은 현재 누구나 먹을 것 없으니
何論旅食闕辛甘	나그네 음식, 맵고 단 것을 어찌 따지겠는가 <sup>6)</sup>

이 작품은 문면상으로 볼 때 오랜 장마와 흉년을 애기하고 있다. 촌락에는 아낙네가 야위었고, 누구나 먹을 것이 없으니 나그네가 음식 맵고 단 것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남녀 할 것 없이 백성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시인 또한 그 백성과 일체가 되어 자신도 그 고통을 분담하려는

5) 『黃帝素問大要』, 「上古天真論」.

6) 이규준 저, 『국역 석곡산고·석곡심서·포상기문』, 『전통의학·고전국역총서29』,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년, p45.

진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보다도 세상이 혼란해져 의리 있는 사내가 적은 즉 도덕적 해이와 정신적 피폐가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일정한 서정적 긴장과 주제의 심각성을 유지하면서 석곡의 시대에 대한 걱정과 진실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 작품을 살펴보자.

〈秋日東行〉	가을에 동쪽으로 가면서
山靄水雲接素秋	산 기운 물 구름, 맞닿은 가을
晚來烟景入毫收	저물녘 이내 낀 경치, 붓 끝으로 거두네
菊花露吸金鰲洞	金鰲洞에서 국화 이슬 마시고
蓮葉船浮白鷺洲	白鷺洲에서 연잎 배 띄우네
黃河消息千年後	黃河의 소식 천년 뒤의 일이고
碩果精神一線留	碩果의 정신 한 가닥 남아있네
行道遲遲如大醉	만취한 사람처럼 느릿느릿 길을 가는데
傍人謂我好康遊	사람들은 나보고 호강스런 유람한다 하네 <sup>7)</sup>

어느 가을 날 저녁 풍경을 배경으로 시인은 가을 저녁의 고즈넉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잘 포착하고 있다. 그러한 자연의 모습에 자신도 동화되어 국화이슬을 마시고 연잎배를 띄우기도 한다. 가을 저녁의 분위기 속으로 그 神秘롭고 淸淨한 自然 속으로 자신을 내맡기고 당분간 홍진의 세상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후반의 넷 구가 잘 보여준다. 특히 6,7구의 黃河消息과 碩果精神이 바로 그것이고, 이는 석곡의 정신지향을 예각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누런 황하물이 맑아지면 聖인이 태어난다는 전설도 머나먼 천년의 뒤 일이라서 실현 불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시인도 자포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 줄기 기대와 희망까지 一掃해버린 것은 아니다. 儒者로서 經世家로서의 삶을 일정하게 유지했던 석곡에게는 어떤 형식으로도 자신의 의지를 표명해야 했다. 나라에 대한 우국충정과 백성에 대한 애민정신이 아예 拋棄의 상태가 되었든, 내면적 의지로 克復의 형태가 되었든,

宗敎的 靈性으로 超克을 시도하였든, 예술적 경지로 그 방향성을 틀었든, 혹은 교육과 육영사업으로 후일을 기약했든지 간에 석곡의 삶에는 항상 이것이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황하물이 맑아지는 일은 천지 개벽의 일이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미약하지만 한 가닥 희망의 끈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다음 6구의 ‘碩果精神’으로 좀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 이 대목은 어쩌면 석곡의 정신적 지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碩果’는 『周易』 ‘剝卦’에 나오는 말이다. ‘上九 爻辭’에 “큰 과일은 먹히지 않아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집을 허문다.”<sup>8)</sup>라 하였다. 北宋代 성리학자 伊川 程頤(1033~1107)는 “여러 陽이 사라져 이미 다하고 홀로 上九 한 爻만이 남아 있으니, 큰 果實이 먹히지 않고 다시 소생활 이치와 같다. 上九도 변화하면 純陰이 되기는 하나 陽은 다하여 없어질 수 없으니, 위에서 변하면 아래에서 생겨나 조금의 休止도 용납되지 않는다. 성인이 이 이치를 드러내어 陽과 君子의 道가 없을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亂世든 惑世이든지 간에 陽脈은 영원히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요, 우주의 섭리인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오듯이, 언젠가 陽의 세상의 표징인 君子 세계가 도래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 상징이 ‘碩果’이고 ‘碩果精神’이다.

마지막 7,8구에서 시인이 만취한 듯이 보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실의에 빠진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마치 『史記』, 「孔子世家」에 ‘집 잃은 개 모양[喪家之狗]’으로 동구 밖에 서있는 공자의 상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모습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석곡의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자가 실의에 빠져있다고 해서 세상과 도탄에 빠진 백성의 구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중의적으로 보면, 道의 世界는 現實이라는 時空間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실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씨알만은 潛存하고 있다. 게다가 속세의 일반과 다르게 유유자적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세상과 나라 걱정에 자유로울 수 없는 지식인의 자화상이자 선비의 아픔인 것이다. 마지막 8구에서 세상 사람들은

7) 위의 책, p11.

8) 『周易』 剝卦 上九 爻辭에 “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라고 되어 있다.



나로 모아 극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다음의 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又吟〉                    또 노래하다

狂狷爲疴合受針    狂狷<sup>11)</sup>이 병이 되어 침을 맞아야만  
하니  
陳方靡效病還添    처방을 쓰나 효과 없이 병만 더 심  
해졌네  
思深發憤常忘食    생각 깊어 단단히 마음먹어 항상 먹  
는 것도 잊고  
意會吟詞便撫髻    뜻이 맞아 노래 읊을 때마다 수염을  
쓰다듬지  
天命元無分氣理    천명엔 본래 理와 氣 나뉘지 않으니  
士林胡至鬪冰炎    선비들은 왜 원수처럼 다투게 되었나  
那時打破東西黨    그 당시 東西分黨 타파했으면  
海內和平遠妒嫌    세상은 평화로워 시기와 질시 없었  
을텐데<sup>12)</sup>

첫째 구에서 석곡은 ‘狂狷’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유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천명하고 있다. 감히 聖人과 賢人으로 자처하지는 못하지만 유가의 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뜻을 높게 가진 狂者나 지킴이 굳센 狷者로 자임하면서 유가의 태평성대와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현실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구절은 제5구이다. 석곡은 ‘天命元無分氣理’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석곡이 理氣說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그의 『入伽椰山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13)</sup> 동시에 석곡은 ‘主理’니 ‘主氣’니 하며 기호학과 영남학이 나누어지는 데 대한 거부와 비판을 가하며 특히 東西分黨을 打破했으면 세상은 참 화평하였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바, 이는 ‘이규준의 문제의식의 출발이 바로 주자학적 성리학을 따르는 당대의 지식인 계층에 대한 비판의식과 붕당

결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이다’라는 기존 학계의 견해와 그 궤를 같이하는 구절로 볼 수 있다.<sup>14)</sup>

〈值雨〉                    비를 만나다

抱病未登江上臺    병들어 강가 누각에 오르지 못했는데  
逢君今日蘊懷開    오늘 그대 만나 가슴 속 회포를 펼치네  
却憐三夜峰頭雨    더욱 아름다운 것은, 사흘 동안 봉  
우리에 비 내려  
添得源泉活水來    샘물 근원 불어나 맑은 물 흘러오는  
것이지<sup>15)</sup>

내리는 비를 두고도 석곡은 단순히 서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도학적 견해를 서술한다. 사흘이라는 제법 긴 시간 비가 내려 샘의 源泉에 물이 많이 불어나서 온 세상에 活水로 흘러넘침을 노래하고 있다. 긴 비는 나그네의 길을 막기도 하고, 혹은 지겹게 내리는 비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석곡은 이 긴 비에 오히려 生命의 源泉이 遍在하여 있다고 보고 그 흐름에 주목하는 것이 독특하다. 그만큼 자연현상과 일상생활을 바라보는 데에도 우주와 삶의 根源과 道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電線                    전기줄

鐵絲來去分毫間    오가는 철사줄 가늘디 가는데  
千里音書片刻還    천리길 먼 소식을 순식간에 전하지  
機巧驅民溪壑裏    교묘한 기계가 백성을 구렁텅이로  
내몰지만  
康衢路上也非關    길은 넓고 커서 상관하지 않지<sup>16)</sup>

부제에 ‘길가는 도중에 입으로 읊은 것’이라 하였다. 어디인지는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법 널따란 신작로

11) 狂은 뜻이 높은 반면 행동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狷은 지식수준은 미달이나 행동을 잘 단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論語』에 “中道を 행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면 반드시 광자나 건자와 함께 하겠다.”는 공자의 말이 실려 있다.  
12) 위의 책, p27.  
13) 위의 책, pp83-87에는 이규준이 면우 광종석과 理와 氣는 원래 하나라는 의견을 나누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14) 위의 책, 『해제』 p153에는 『입가야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로 ‘이규준의 문제의식의 출발이 바로 주자학적 성리학을 따르는 당대의 지식인 계층에 대한 비판의식과 붕당 결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과 퇴계 이황의 이기호발설이 태생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인 이원론적 딜레마에 대한 비판과 극복의식’을 들고 있다.  
15) 위의 책, p28.  
16) 위의 책, p39.

가 아닌가 한다. 그 옆에 길게 뻗어있는 전선줄을 보고 석곡은 어떤 생각을 한 것일까?

전선줄을 너무도 가늘지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鐵絲줄은 가늘고 얇은데 오히려 이것이 빠르다는 면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석곡은 이를 ‘機巧’라고 하였다. 그 ‘교묘함’이란 사실 모든 기계화 산업화 문명의 핵심이다. 그러나 석곡은 이러한 교묘함이 오히려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석곡이 기계와 산업 문명에 대한 시각은 비단 私見만은 아니다. 이 당시 많은 유자들이 기계문명에 대한 인간 소외와 유사한 문제들로 인해 부정적인 견해를 펼치는 것과 유사하다.

〈行路吟〉	길 가면서 읊다
一筇千里向誰尋	지팡이 하나로 천리길 멀리 누구를 찾아 갔나
踏盡青山淺且深 艱脆中途聊驗世	푸른 산 모두 답과하니 얕고도 깊구나 위태로운 여정 속에 그나마 세상을 경험하니
峨洋何處可論心 落地人生皆是客 滔天物慾匪斯今	어디서 峨洋 마음 논할 수 있을까 땅에 떨어진 인생, 누구나 나그네인데 하늘까지 덮는 物慾, 오늘날 일만은 아니지
回頭欲問清閑意	머리 돌려 맑고 한가로운 뜻 물으려 하는데
黃鳥三聲在綠陰	녹음 속에 들리는 꾀꼬리 울음 두세 소리 <sup>17)</sup>

길을 가면서 떠오를 상념들을 기록한 시이다. 하지만 눈에 비친 자연이나 마음 속 감정을 쏟아낸 일반적인 서정시는 아니다. 도입부부터 심상치가 않다. ‘지팡이 하나로 천리 길 멀리 누구를 찾아 갔나’라며 1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시의 전반의 흐름에 비춰보면 이 구절은 표면적인 뜻 외에 한 단계 더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구에서는 산책이나 등산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긴 여행을 빗대고 있는 것이다. 一生이라는 긴 여정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自問하고

있는 것이다.

2구에서는 석곡의 사상적 깊이가 또 한 번 드러난다. 석곡은 2구에서 ‘푸른 산 모두 답과하니 얕고도 깊구나!’라고 적고 있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하나의 산에 깊고 얇은 곳이 모두 있다’라고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인생의 길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함께 있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이 시의 핵심이 되는 구절은 5구와 6구이다. 석곡은 ‘땅에 떨어진 인생 누구나 나그네인데, 하늘까지 덮은 물욕 오늘날 일 만은 아니지’라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이 두 구절만큼은 전반적으로 담담한 석곡의 다른 시들과는 달리 문인적 기질이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구절이 품고 있는 내면적인 깊이 또한 여느 도학자 못지않은 경지를 보여준다. ‘천지는 萬物의 여관이요 시간은 百代의 손님이라’고 읊었던 李白(701~762)의 표현을 점화한 듯한 이 구절은 이어지는 6구에서 사람의 삶이 욕망에 점철되어 있음을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세태를 걱정하는 석곡 자신의 도학적 깊이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석곡은 사상적으로는 이기일원론을 견지했고 또한 당시 봉당의 현실을 마음 아파했다. 국가의 일을 자신의 임무로 자임하는 이러한 유가적인 책임감은 <翫日阻雨>나 <又吟>과 같은 그의 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보였다. <電線>과 같은 작품에서는 현대 문물의 수용을 비판적 견지에서 서술하며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더 깊은 고통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行路吟>은 문학적인 기질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통해 욕망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백성들을 걱정하는 석곡의 우국애민 정신이 잘 표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IV. 결론

이상에서 석곡 시의 주요한 주제의식들을 살펴보았다. 석곡은 한의학자로 명성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석곡의 사상과 시대인식을 염두에 두고 그의

17) 위의 책, p45.

한시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석곡이 살았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는 전통시대와 근대시기의 분기점이라는 文明史的 전환의 시기이다. 그의 한시작품은 이러한 시대를 기반으로 전통 지식인의 고뇌와 좌절, 갈등과 희망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석곡은 전문적인 시인이 아니었지만 녹록치 않은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의 사상이 명쾌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시도 애매모호한 함축미를 사용하기 보다는 淡淡한 描寫나 明確한 隱喩를 통해 읽는 이에게 情緒的 感染을 도모하였다. 본고에서는 석곡시의 주요한 주제의식을 愛民의 성향과 道의 扶植, 그리고 유가적 책무와 憂患意識의 두 가지로 분류해보았다.

석곡의 시를 통해서 그가 백성들의 삶을 他者の 삶으로 보지 않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존재로서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애정 어린 이러한 시선은 그의 시 전반에서 드러났고, 그가 『周易』 剝卦의 爻辭에서 인용한 ‘碩果’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지금은 비록 도덕적 이상 세계인 군자의 세상은 아니지만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오듯이 언젠가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올 것이다’라는 내용을 지은 것에 착안하여 ‘碩果精神’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보았다. 결국 석곡은 이러한 방식으로 儒家로서의 道의 扶植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던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유가의 공부를 한 석곡은 당대 영남과 기호의 저명한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학설을 구축해 나갔고 때문에 그의 사상적 저변에는 유가로서 백성과 나라에 대한 책임감과 근심이 깔려 있었다. 이런 성향 또한 그의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翌日阻雨> 등의 작품에서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말과 글을 그 사람의 모습을 반영한다. <入伽倻山記> 등의 글에서 보이는 석곡은 당대 주류 사상과들과의 교류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하고 때로는 주자를 비판하고 『東醫寶鑑』의 학설을 재고하는 등 보통사람이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동도 거침없이 실행했다. 이와 같은 그의 성향은 한시 작품에도 그대로 묻어나 문학적인 표현이나 수사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감정을 평담하게 풀어내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자칫 무미건조할 수 있는 이런 작시 방법을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의 깊이만큼 핵심을 찌르는

구절로 그 시적 가치가 적지 않다고 보인다.

근대 초입 격동기에 전통적 지식인이 충분히 內含할 만한 憂患意識도 그의 작품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국권을 잃은 혼탁한 세계를 응시하면서 동시에 淸明한 世界로의 歸依와 그 擴散을 希求한 작품들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지면상의 한계로 많은 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살펴본 몇 작품만을 보더라도 그가 전문적인 시인은 아니지만 여느 시인 못지않은 호소력을 갖춘 시를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한의학자와 사상가로서의 위상과 함께 文人的 자질에 대한 논의까지 차체에 그에 대한 연구가 한층 더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참고문헌〉

- 李圭峻, 『石谷散稿』, 『한국역대문집총서』, 경인문화사, 1999.  
 이규준 저, 『국역 석곡산고·석곡심서·포상기문』, 『전통의학·고전국역총서29』,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맹용재 외, 『한의학통사』, 고양, 2006.  
 윤사순, 『한국유학논구』, 현암사, 1994.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권오민, 「李圭峻의 心氣哲學과 扶陽論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5.  
 권오민, 「石谷 李圭峻의 人間觀과 醫學論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10.  
 김 적, 「李圭峻의 생애와 학설에 관한 고찰」, 경희대, 1979.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221), 『石谷心書』